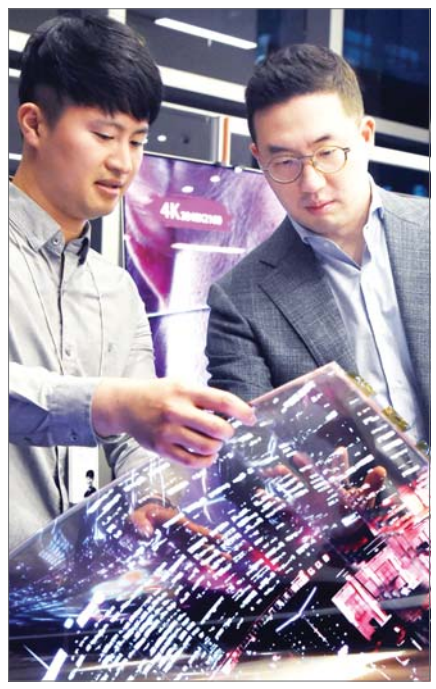
젊은 총수의 미래비전, 'R&D 중시' 선대회장 빼 닮았네

보폭 넓히는 구광모 LG 회장

조직 다잡기 등 다목적 포석 추측
구본무 승계 '정통성' 등 재확인
AI·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점검
"R&D·인재 확보가 LG의 미래"


구광모 (주)LG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시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연구원과 함께 '투명 플렉시블 OLED'를 살펴보고 있다. /LG

구광모 ㈜LG 대표이사가 지난 12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시작한 첫 현장 행보는 다양한 목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재계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구 회장이 공식 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 6월 29일 ㈜LG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회장직에 정식으로 오른 지 76일만이다. 선대 고(故) 구본무 회장의 집무실을 그대로 두고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연말까지는 조용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전격적으로 현장을 찾은 것은 상당한 '메시지'를 내포했다는 해석이다.

우선 그룹의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5G, 로봇, 바이오 등의 분야를 뒷받침할 연구개발(R&D) 활동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구 회장은 현장 방문 중 "LG사이언스파크는 LG의 미래를 책임질 R&D 메카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이 계속 더 높아질 것"이라며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또한 미래 성장 분야의 기술 트렌드를 빨리 읽고 사업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로 연결할 수 있는 조직과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LG전자가 오스트리아의 차량용 헤드램프 업체 ZKW를 인수한 것을 비롯해 주력 계열사들이 AI 연구를 강화했다. 로봇·태양광·바이오 사업 등을 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행보다.

또한 구 회장의 이번 LG사이언스파크 방문에는 총수 승계 '정통성'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추측도 제기됐다. 올해 만 40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총수직에 오른 데다 선대 회장의 양자라는 안팎의 시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본무 회장 일생의 업적으로 꼽히는 LG사이언스파크 방문에는 단순한 현장 일정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 회장은 이날 각 R&D 책임 경영진에게 "LG의 미래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사이언스파크에 선대 회장께서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셨듯이 저 또한 우선 순위를 높게 두고 챙겨나갈 것"이라며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연구개발 환경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말 정기 임원 인사를 앞두고 그룹 안팎에서 '조기 인사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조직 다잡기'의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도 있다.

구 회장의 이번 일정은 공교롭게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삼성종합기술원 방문에 뒤이어 발표되면서 두 '젊은 새 총수'를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더욱 쏠렸다. 이 부회장이 지난 10일 '삼성의 R&D 중심기지'로 여겨지는 삼성종합기술원을 찾아 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한 것과 시점이나 일정 등이 겹치기 때문이다. 이밖에 18일에서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할 경제인 방북단 명단에 주요 그룹 총수급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 것도 구 회장의 일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의견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13일 "사실상 총수 행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신성장 동력 사업의 R&D 분야를 강조하면서 미래에 대비하는 리더십의 면모를 보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총 4조원을 투자해 4월 오픈한 LG사이언스파크는 17만여㎡(약 5만3000평) 부지에 연면적 111만여㎡(약 33만7000평) 규모로 20개 연구동이 들어섰다. 현재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하우시스,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 CNS 등 8개 계열사 연구인력 1만7000여명이 집결해 있다. 2020년까지 2만2000여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포스코 직원이 본사에 마련된 선물반송센터에서 선물 반송 접수를 하는 모습.

현대차·포스코 등 대기업

"추석 선물 반송합니다" 건전한 명절 문화 앞장

국내 대기업들이 추석 연휴를 전후해 협력업체 등 거래 관계자에게서 배달되는 명절선물을 반송하며 부정청탁 및 특혜제공 방지에 힘쓰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반송센터를 운영해 건전한 명절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다. 포스코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포항, 광양, 서울 각 지역별로 선물반송센터를 운영해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다.

선물반송센터는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명절 선물을 반송하는 곳으로 일체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선물이 임직원 자택으로 배달된 경우 선물반송센터에 연락하면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반송 처리를 돕는다.

포스코는 2003년 윤리규범을 지키는 깨끗한 명절을 만들자는 취지로 '선물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시작해 올해로 16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올해도 각 사업장별로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추석 명절 들어온 선물은 문서수발실 선물반송센터에 신고하면 보낸 이에게 되돌아 간다. 이는 정몽구 회장이 지난 2000년 그룹 출범 당시 투명경영을 선포한 이후 협력업체에서 선물이 들어오면 이를 총무팀에 신고·반납하는 규정을 만들어 지면서 시작됐다.

한편 삼성과 LG도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은 물론, 평상시에도 협력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황창규 "5G 기반 B2B 서비스 준비… 글로벌 협업 강화"

〈KT 회장〉

'MWC 아메리카 2018'서 밝혀
4차 산업혁명에 13.5조원 투자
"5G는 사람 위한 기술이어야"

KT 황창규 회장이 MWC아메리카 2018 KT 전시관에서 직원으로부터 5G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아메리카 2018'에 참석한 황창규 KT 회장이 5대 영역에서 5G 기반 B2B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 KT는 이와 함께 5G 시대에 글로벌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13일 공개했다.

KT는 5G 상용화 이후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5대 영역을 중심으로 B2B 및 B2G 협업을 추진 중이다. 5대 영역은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커넥티드카 ▲5G 미디어 ▲5G 클라우드다.

최근 KT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5G(무선), 10기가 인터넷(유선) 등 네트워크 9조6000억원과 AI, 사물인터넷(IoT), 에너지, VR, 빅데이터 등 융합 ICT 3조9000억원을 포함해 13조5000억원을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투자한다. 전체 투자액의 60% 수준이다.

KT는 B2B, B2G 협업을 통해 5대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추진 중이다. '스마트시티' 영역에서 준비하는 서비스는 드론, 스카이십 등을 활용한 공공안전 솔루션을 비롯해 스마트스쿨, 스마트스타디움 등이 있다. 제도 정비에 맞춰 5G 기반의 원격 진료(헬스케어), 스마트에너지 관련 서비스도 검토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 영역에서는 무선 기반의 제조장비를 통해 작업현황 실시간 공유, AR 기반의 원격 진단, 생산성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원격 제어 등을 준비 중이다.

'커넥티드카' 영역은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차량관제, 운전관리, 인포메이션, 정밀측위 등에 대한 기술 개발과 관련 기업들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5G 미디어'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보였던 싱크뷰, 옴니뷰, 360도 VR 등 실감형 미디어와 함께 AR 및 VR과 연계한 실감형 게임이 있다. '5G 클라우드'의 경우 기존 클라우드의 단점을 보완한 엣지(Edge) 클라우드 제공을 위해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KT는 한중일 최대 통신사들이 함께 하는 전략 협의체(SCFA)를 통해 차이나모바일, NTT도코모와 5G 상용화 전략과 서비스 발굴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북미 이동통신 사업자인 버라이즌과 2016년부터 협력관계를 맺고 5G 기술, 서비스 추진 현황을 공유 중이다. 인텔과는 5G 서비스를 위한 인텔 플랫폼 아키텍처와 성능 최적화 기술 검증 및 상용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2일 MWC아메리카 현장에서 퀄컴과 5G 사업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MOU를 맺고 협력관계를 강화했다.

황창규 회장은 "5G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늘리고, 손발이 불편한 사람도 운전을 할 수 있는 등 사람을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며 "KT는 다른 기업과 정부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SK하이닉스, 2차 협력사 지원… "반도체 생태계 육성"

맞춤형 컨설팅 '그로잉 업 투게더'
하이닉스 자체 주도 프로그램

SK하이닉스 구매담당 김광욱 전무(앞줄 왼쪽 여덟번째)가 국내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2차 협력사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태계 강화의 일환으로 2차 협력사에게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그로잉 업 투게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 대상은 1차 협력사의 추천을 받은 27개 2차 협력사와 1차 협력사인 기술혁신기업 3개사다. SK하이닉스는 전문 컨설팅사와 함께 품질, 환경안전,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다양한 경영이슈에 대해 협력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규모와 상황에 맞게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정부 주도의 협력사 컨설팅과 별개로 SK하이닉스 주도로 추진된다는 점이 기존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다.

이날 이천 본사에서 2차 협력사 대표, 1차 협력사 임직원, SK하이닉스 구매담당 임직원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 등 60여명이 모여 컨설팅 추진 방향과 동반성장 활동을 공유했다. 컨설팅은 9월부터 1년간 진행되며 이후 성과 발표회를 통해 우수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 구매담당 김광욱 전무는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등 2차 협력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면서 "SK하이닉스는 직접적인 거래가 없는 2차 협력사의 육성·지원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4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1~3차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반도체 상생 CEO세미나를 신설하고 채용박람회, 인턴 지원, 모바일 교육, 반도체 기술교육, 분석/측정 지원센터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인프라 공유를 통해 2차 협력사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있다. /안병도 기자